

# 지역 청년 무주 정착 지속 지원

### 군, 지역주도형 참여청년 지역 정착 지원 사업장 대표·참여 청년 간담회 가져

무주군이 지역 청년들이 무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올해 37명이 자발적 정착을 위한 사업장 대표 및 참여 청년 간담회 자리에서다.

20일 개최된 간담회는 최북미술포다목적영양관에서 청년일자리 참여사업장 대표와 청년들, 그리고 전주기전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청년의 지역정착을 돕는 좋은 일자리 늘리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와 문제점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전주기전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약환 과정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성과발표를 통해 신규 창업지원과 인건비 지원, 직무교육, 청년 복리후생비 지원 등으로 올해 정착도가 높았다. 산마을영농조합 박민철 대표는 "코



무주군은 20일 최북미술포다목적영양관에서 청년일자리 참여사업장 대표와 청년들, 그리고 전주기전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가 참석해 무주군 지역주도형 참여청년 지역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로나사기에 회사 경영 상황에 큰 힘이 됐으며, 힘든 시기에 직무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고용하기에 부담스러웠으나 충분한 직무교육을 부담 없이 맡길 수 있어 회사 운영에 큰 보탬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년들은 "무주군이 청년대표와 청년 근로자들이 동반 정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발굴과

지원을 바란다"고 건의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은 지역 특화산업 사업장과의 긴밀한 유기적인 협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정주여건과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지역 미래기반인 청년들이 무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 진안군 성수면, 민민의 장 수상자 선정

진안군 성수면은 20일 민민의 장 선정 심의위원회를 갖고 성수면민의 장 수상자 3명을 확정했다.

이날 선정된 수상자는 산업장 전진선(70세), 애항장 안중숙(61세), 효열장 김현자(75세)씨 등 3명이다.

산업장 전진선씨는 수박공선출회회 조직을 육성해 지역 농업의 발전을 위해 선진기술 보급 및 우수 농산물 생산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수농산물인증 및 잔류농약검정을

실시해 안전거리를 생산 유통하는 등 성수면 농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애항장 안중숙씨는 재경성수면향우회 총무이사 및 홍보이사 재경진안군민회

산인회 총무, 재경진안군민회여성위원, 재경진안군민회 의전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 진안과 진안특산물 홍보 및 성수면 침수피해 복구 모금에 앞장서는 등 성수면 출신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며 각종 봉사활동에 사명감을 갖고 활동해 향우들에게 귀감이 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효열장 김현자씨는 1971년 성수면민과 혼인 후 연료하신 시어머니를 30여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으며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능력이 저하된 7년 동안에도 자택에서 성심껏 간병해 남다른 효심에 면민들의 칭송이 자자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오는 10월 3일 성수면민의 날 기념식에서 민민의 장을 수여받을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산업장 전진선, 애항장 안중숙, 효열장 김현자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만전

진안군은 20일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 담례품 선정 등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모든 국민들이 현재 주소를 제외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기부금을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 또는 담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일례로 진안군은 진안군과 전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고 반대로 진안군이 아닌 국민들은 모두가 진안군에 기부가 가능하다.

이해 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으로 주민 복리 증진은 물론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전준비에 나서고 있다.

먼저, 지난 8월 조례제정을 통해 인구활력담을 신설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마을방성, 40개 소 현수막 게시 등 추석명절 맞이 대대적 홍보를 시작으로, 조례제정 입법 예고, 담례품 선정을 위한 위원화운영, 홍보품 홍보부스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출신 형제 자

매, 자녀들에게 진안을 위해 고향 사랑 기부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관계인구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판단하고 군민 이해와 인식확산을 위한 지역 내 홍보에 우선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은 담례품 선정과 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용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해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담례품 선정을 위한 담례품 조사·발굴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10월 말까지 담례품 선정을 완료해 제도 시작 전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인구감소 예방,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군민이 홍보대사가 되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효율적인 ‘장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논의

### 장수군·전북연구원, 주요 현안사업 추진 정책협의회 열어

장수군과 전북의 싱크탱크, 전북연구원 연구원이 장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 주요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20일 군청 회의실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새롭게 출범한 민생기 핵심 추진사업과 수임사업 등의 추진 논리를 점검하고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집중논의했으며, △장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국도 13호선, 26호선 도로시설 개량사업 △장수레드연구소 설립 등 7

대 현안에 대해 정책지문과 상호토론을 이어갔다.

군은 앞으로 전북연구원과 소통·협력 관계를 유지해 같이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는 성공적인 민생기 정책 동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권혁남 전북연구원장은 "장수군은 자연 그대로의 식생을 활용한 산림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에 적합한 지역"이라며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내방객을 유치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전

북연구원 연구원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최후식 군수는 "이번 협의회는 지역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전북연구원의 의지가 담긴 의미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 진안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

### “축제 연계로 지역에 활력 불어넣어야”

#### 이미옥 군의원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 이미옥 의원(비례대표)은 20일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차 본회의에서 '여성농업인 처우개선 대책 마련'과 '특색 있는 읍·면민의 날 추진'에 관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미옥 의원은 "군 여성농업인은 약 4000여 명으로 전체 농업인 수의 4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 인력이나 전담팀 없이 2개과 3개 팀에서 개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여성정책팀' 나주시 '여성농업인지원팀', 영월의 '농촌여성팀'과 같은 여성농업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각종질환 예방률과 일반 여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의료비를 언급하며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사업'의 추진과 더불어 '난소암검진 지원 사업'과 같은 실질적인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있는 '안천면민의 날'과 '동향면민의 날'을 소개하며, 인구소멸위기에 직면한 우리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콘텐츠와 축제를 연계한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옥 의원은 "응답번호로 인해 고향을 떠난 향우님들과 함께 그리운 고향에서 정을 나누며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축제가 바로 우리 지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집행부에서는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주시길 바란다"며 질문을 마쳤다.

### “청년참여포인트 제도 확대 실시를”

#### 이투라 군의원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 이투라 의원(가 선거구)은 20일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차 본회의에서 '역대 군정의 관광 개발 계획에 대한 난맥상과 지방소멸 대응 전략과 청년정책' 등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이투라 의원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우리군은 일과 휴식의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정치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과 설레는 감정 속에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며 "이번 질의를 계기로 진안군 지방자치의 발전추를 되돌아보고 점검하며 협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행정에는 연속성과 안정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의 관광 개발 계획에는 연속성이 없어 안타깝게며 △중단된 미인사회복합원, 미인호텔, 부귀산 별빛공원에 대한 향후대책 △미인산 남·북부 연결 노



선과 이동수단에 대한 계획 등 진안군 관광개발 계획 전반에 대한 질문을 펼쳤다.

또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언급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계획과 우선순위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진안의 특화되고 차별된 계획 △도시학생 농촌유학에 대한 대책 △농업부분 청년세대 유입과 정착을 위한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투라 의원은 "진안군 청년들의 지역사회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청년참여포인트 제도 확대 실시'와 '군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청년 합당제'와 같은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서 언급했던 문화관광과 지역소멸대응 및 청년정책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질문을 마쳤다.

### “교통 소외지역 대책 절실”

#### 손동규 군의원

진안군의회(의장 김민규) 손동규 의원(가 선거구)은 20일 제279회 제1차 정례회 제차 본회의에서 '진안군 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과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 확대'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손동규 의원은 "농촌지역은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버스, 택시 등의 교통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 제약받는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며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 확대에 대해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손 의원은 "현재 보원택시를 운행하고 있지만 순환택시는 합리적인 경로만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군산과 군하리를 제외한 지역은 여전히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진안읍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편의 대책이나 이밖에 우리군에 부합하는 교통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 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부족한 노동력과 기후변화 등으로 이고를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100%에 달하는 벼농사 기계화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농가에서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병해충 방제를 지적하며, 공동방제단 구성을 통한 '진안군 전면적 공동방제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면 경영비 절감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손동규 의원은 "연일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농심(農心)을 헤아려 병해충 방제와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손동규 의원은 "연일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농심(農心)을 헤아려 병해충 방제와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 무주군,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내달 말까지

무주군이 오는 10월 말까지 만 1세 이상 성인 약 9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무주군보건소(소장 김문)에 따르면 2008년부터 매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해 보건정보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 5월 전북대학교를 책임 대학으로 협약 체결해 조사원 모집과 교육을 마쳤으며, 지난달 16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조사원 5명이 표본가구를 방문, 20분 내외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한우방사과량축제 추진위, 제2차 임시총회 개최

장수한우방사과량축제추진위원회가 제16회 장수 한우방 사과량 축제 추진을 위한 제2차 임시총회를 김흥기 추진위원장의 주재로 20일 장수농업기술센터 대강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이한민 장수교육지원청 서경주 교유장 후임으로 허윤중 교유장이 취임함에 따라 추진위원 변경의견을 건의 의결하고, 이와 함께 제16회 장수 한우방사과량 축제 실행계획 보고회를 진행했다.

보고회에는 축제 추진방안과 개별 프로그램 운영방안 등을 보고하고, 완성도 높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축제를 위해 누리파크를 활용한 가족체험마당을 조성하고, 장수실내체육관 및 실내테니스장 등의 신축으로 인해 부족해진 주차장으로 농공단지 미분양 부지를 활용하는 한편, 지역화폐인 장수시립상품권 현장 판매를 통해 소비 촉진에 힘을 계속한다. 또한, 축제 시기 변경에 따른 추위 대책방안 및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맞는 방역대책도 적극 강구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기자

### 진안홍삼축제 실무추진단 2차 보고회 개최

진안군은 20일 군청 강당에서 2022 진안홍삼축제 실무추진단 50명이 모인 가운데 2차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창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은 진안군 각 실과소 팀장 및 부읍면장이 단원으로 구성된 홍삼축제 담당 임무의 운영에 임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치러진 1차 보고회 이후 개최된 이날 2차 보고회에서는 이후의 진척 사항과 문제점 해결 대책 등 홍삼축제를 위한 많은 발전 방향들이 제시되는 등 축제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도 같이 진행했다.

특히 실무추진단은 이번 보고회에서 성공적인 홍삼축제 개최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각자의 위치에서 빛나는 역할 수행을 하기로 다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 무주군,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

무주군이 주민편의와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세를 홍보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공인전자문서 중계지를 통해 모바일전자고지서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카카오톡(카카오페이)으로 송달하는 서비스다.

스마트폰이 대중적·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 맞춰 손쉽게 모바일을 이용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이 가능하다. 안내 문자 수신 후 본인확인(카카오페이)으로 송달하는 고지서를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구나 납세의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몰라도 주민번호 암호화를 통한 본인인증 휴대폰 번호를 활용해 마담·체납 예방 목적 등으로 카카오톡을 활용 발송할 수 있다.

우편 고지서 발송으로 실제 거주자가 맞지 않거나 고지서 미수령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전문선 기자